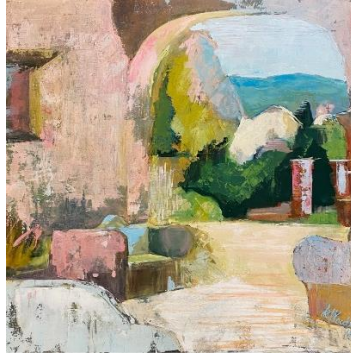


환상 및 단층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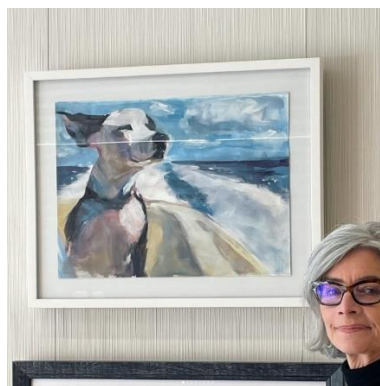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 - 산후안 카피스트라노에 기반한 예술가 김벌리 우드의 새로운 미술품 컬렉션이 현재 2023년 5월 17일까지 전시되고 있습니다. 존 웨인 공항을 이용하시나요? 각 안전선에 있는 진열대를 확인하고 아크릴과 유화로 담아낸 고요한 풍경을 감상해보세요.



미션 가든 벤치 SJC, 2023년 작

남부 캘리포니아는 환상과 단층선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이곳은 20년마다 모습을 바꿉니다. 할리우드 사운드 스테이지의 규칙적인 패턴으로 철거되고 다시 건설됩니다. 분주한 대도시에서 힘을 빼고 무심해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끊임없는 변화는 한 순간 멈춰서서 캔버스에 풍경을 담아내고자 하는 우드의 열망에 불을 지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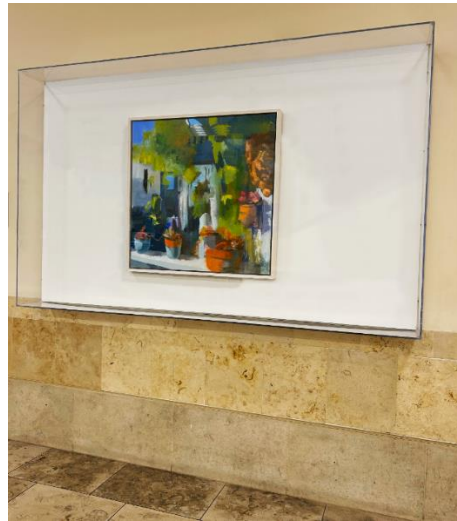
김벌리 우드는 웨스트 코스트 출신으로 62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독학으로 그림을 배웠으며, 하루에 3~8시간씩 그림을 그리면서 캘리포니아의 풍경과 주변 문화를 기록합니다.



예술가 김벌리 우드, 시티 오브 호프에서 개최한 자신의 전시회에서

김벌리 우드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저는 2019 년에 산후안 카피스트라노로 이사를 왔습니다. 뿌리 깊고 다양한 이야기가 얽혀있는 이곳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제 의식은 자극을 받게 되고 화폭에 이야기를 담게 됩니다. 물감, 갈겨 쓴 글씨, 굵은 화법을 사용하여 사우스 오렌지 카운티의 풍경을 밝고 추상적인 모습으로 묘사하고 질감과 조용한 분위기를 더합니다. 제 그림은 감상하는 분이 발을 들여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풍경을 향구히 담아냅니다.”라고 말합니다.

김벌리와 그녀의 작품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www.kimberleighwood.com 을 방문하거나 인스타그램(@hausofwoo)에서 김벌리를 팔로우하세요.



수하물 보관소 B 에 설치된 테라코타 화분, 2022 년 작

모든 작품 컬렉션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에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은 터미널 A, B, C의 보안 검색대 근처의 위쪽 출발층과 수하물 캐리셀 2 및 4의 도착층 아래에 있습니다.

존 웨인 공항 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ocair.com/terminal/artexhibits 를 참조하세요.

###